

세계도시

2006. 11. 20 제155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파리 경계지역의 대규모 도시재생계획 GPRU

도시경영·경제

1. 주차·환경 단속요원을 관광안내원으로 활용 (시드니)
2. 시내중심 쇼핑가에서 차 없는 날 행사 시행 (런던)
3. 지역 소매상 일자리 창출이 청소년범죄 예방에 기여 (영국)
4. '전원도시 산업지역' 계획 발표 (일본 사이타마縣)
5. 공익성 거리시설물에서 상업광고 철거 (북경)

복지·문화

6.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가구 쇼핑 할인 혜택 부여 (일본)
7. 수도 검침 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일본 다카마쓰市)
8. 지하철 내부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및 대형 안내지도 설치 (런던)
9. 정신질환과 미술, 지하철이 만난다 (런던)

도시환경

10. '쓰레기 초과 부담금' 제도 실시 (미국 오كل랜드市)
11. 휴대폰 메시지로 대기오염 정보 제공 (영국 서식스市)
12. 환경캠페인 "우리들의 마로니에를 구하라" 실시 (베를린)
13. 환경보존을 위한 'TX4' 블랙택시 모델 발표 (런던)

도시교통

14.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이용차량 단속 및 벌금 강화 (시드니)
15. 버스노선 개편으로 적자감소 효과 10억 엔(약 83억 원) 발생 (요코하마)

도시계획·건설·주택

16. 주택 개발 시 청소년 여가공간 조성 지침 마련 (런던)
17. 어린이 친화적인 주거지 시설 계획 (영국)
18. 악화되는 도시경관 문제 제기 (일본)

방재·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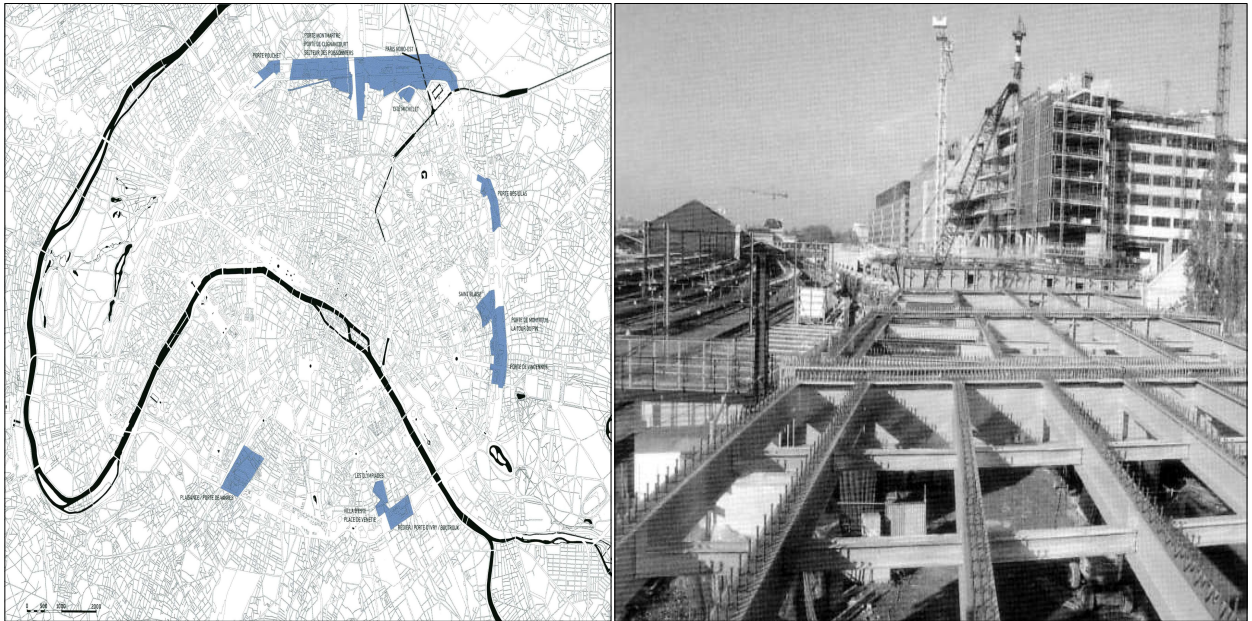
19. 효율적인 재난 구조를 위한 방재안전 물자 비축창고 설치 (북경)

벤치마킹 사례

파리 경계지역의 대규모 도시재생계획 GPRU

<주요 내용>

2000년 12월, 파리는 정부 및 일드프랑스(Ile de France)와 함께 ‘2000/2006 도시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파리스 경계에 있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 문화, 생태적 차원에서의 상호관계를 재구성해 공공 공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제시한 것이다.



(좌) 파리 경계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대규모 계획 GPRU (우) 철도 위를 인공대지로 덮고 개발한 Seine Rive Gauche 지역

현재, 파리는 순환형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경계로 해 도시내부와 외곽지역으로 분리돼 있다. 거리상으로 근접하더라도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특히 경계가 되는 지대에 산업시설물이나 사회집합주거단지가 조성돼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파리는 우선적으로 11개 지역을 선정해 대규모 도시재생계획 GPRU(Le Grand Projet de Renouveau Urbain de la Couronne Parisienne)를 시행하고 있다. GPRU 계획은 기존의 건축설계나 단지설계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도시재생을 위한 대규모 계획’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도시를 잇는 역들이 밀집된 북부지역, 동부지역과 공장단지가 있는 일부 남부지역에 해당된다.

GPRU 계획의 주안점으로는 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 사회집합주거단지의 재생, 거대점유지의 도시적 투과성 향상, 점진적 발전의 재정비, 대형 스포츠레저시설 활성화, 상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공해 제한, 녹지 확충, 유희철도 산책로화, 수변공간의 연계 등이 있다.

<해설 및 평가>

파리의 도시재생계획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미테랑 대통령의 ‘대규모 국가적 건축계획’¹⁾, 파리도시설계연구원 APUR(Atelier Parisien d'Urbanisme)의 도시계획도 SDAU(Schema Directeur

1) 장기간 집권했던 미테랑 대통령(1981~1995)은 취임 이듬해인 1982년에 8개 대규모 건축계획(라 빌레뜨 공원과 과학관 및 음악촌, 바스티유 오페라, 바놀레 rock 센터, 라 데팡스, 백씨 재무성, 아랍문화원, 루브르 보수, Saint-Genieve 재개발)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바놀레 rock 센터가 취소되고 국립도서관, 오르세 미술관, 자연사박물관이 추가되어 실현됐다.

d'Amenagement et d'Urbanisme)²⁾와 경계지역의 대규모 계획 GPRU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파리 중심부가 아니라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열악해진 지역에 제시된 것으로, 미테랑 대통령은 대규모 문화시설의 건립을 통해 도시재생을 계획한 반면에, 파리도시설계연구원은 낙후된 산업지역의 도시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의 도시팽창기를 지난 파리의 도시재생은 정부 주도의 문화시설 확충과 市 주도의 탈산업화지역 재정비로 요약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의해 분절된 市경계지역의 재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GPRU 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 평가를 할 수 없으나, 철도 위를 인공대지로 덮고 개발한 Seine Rive Gauche 지역이나 파리 외곽의 고속도로 일부를 복개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한 월슨대로 재개발 등 실현된 사례로 미뤄 볼 때 GPRU 계획은 파리의 도시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의 경우, 파리와 달리 도시순환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리적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강과 서울시 4대 권역을 잇는 4대 지천에 놓여 있어 수변공간과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기능적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단절에 의해 수변공간과 주변지역은 최소한의 연결기능을 갖추고 서로 별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GPRU 계획의 해당지역은 U자형으로 도로가 아랫부분에 있으며 주변지역은 윗부분에 동일한 높이의 지면을 가지고 있어서 연결이 물리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서울의 수변공간은 주변지역과의 지면높이 차이가 있어서 물리적 구조는 Seine Rive Gauche 지역의 사례와 유사하다.

<벤치마킹 시행방안>

자동차 전용도로에 의해 분리된 지역들을 잇는 계획은 도시 하부구조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막대한 경비를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리는 기존의 재개발 계획과 구별해 '도시재생을 위한 대규모 계획'으로 명명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지점을 선정해 장기간의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

<벤치마킹 기대효과>

도시재생은 비록 시간적, 물리적 구조의 차이가 있지만 산업화를 거친 대도시가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다. 특히 도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산업도시화의 부산물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21세기에 문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질적인 환경이 도시경쟁력이 되고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이 새로운 산업을 유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파리의 GPRU 계획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의해 단절된 서울의 수변공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백승만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mbaek@sdi.re.kr)

2) 도시계획도 SDAU(Schema Directeur d'Amenagement et d'Urbanisme)는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 목표달성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토지의 일반적 활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약 30년에 걸친 중장기계획이다.

1. 주차·환경 단속요원을 관광안내원으로 활용 (시드니)

시드니市는 120명의 주차 및 환경 단속요원(Rangers)에게 기존 업무 외에 관광안내 임무도 부여함으로써 시드니를 찾는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손쉽게 이들 단속요원으로부터 길 안내는 물론 각종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시드니市는 거리 관광안내원들에게 기존의 어둡고 권위적인 유니폼 대신 밝고 친근한 색상의 유니폼을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에게 주요 관광명소, 쇼핑센터와 음식점 등 각종 관광정보가 수록된 책자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했다. 모니카 바론(Monica Barone) 시드니 행정책임자는 “이들 단속요원은 시드니市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요 거리, 가볼 만한 곳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항상 관광객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시드니를 찾는 연간 2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www.cityofsydney.nsw.gov.au)

>>> 전문가 검토의견

도시관광마케팅은 그 도시의 가치를 수요자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자 과정이다. 그 과정은 독특성과 창의성이 높을수록 승수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시드니市의 독특한 관광안내원 활용방안도 바로 그러한 마케팅 과정의 일환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05년 조사한 한국 외국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관광객이 한국 방문기간에 가장 불편했던 점이 언어소통과 안내표지판 부족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 관련 서비스 문제가 한국 관광마케팅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는 사실을 볼 때, 서울시에서도 주차 단속요원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 활용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 일대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한 후,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해 활용함으로써 서울시 관광안내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금기용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2. 시내중심 쇼핑가에서 차 없는 날 행사 시행 (런던)

런던市는 2006년 12월 2일을 상점과 문화시설이 즐비한 웨스트엔드(West End) 거리에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VIP(Very Important Pedestrians)의 날’로 정했다. 2005년 웨스트엔드 지역의 옥스퍼드 거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차 없는 쇼핑가’ 행사일 하루 동안 50만 명이 방문한 ‘Christmas Treat’ 행사와 2006년 여름에 열린 ‘리젠트 거리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행사 시행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 없는 날 행사에는 해당 지역 상점연합회와 건물 소유주 등이 적극 참여했다. 市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런던 관광의 핵심요소인 쇼핑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629)

3. 지역 소매상 일자리 창출이 청소년범죄 예방에 기여 (영국)

영국 조사기관 모리(Market and Opinion Research Institute)는 지역의 소매상들이 창출하는 일자의 대부분을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외된 청소년들이 지역주민과 만날 수 있게 유도하고 생활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소매상 일자리 창출이 청소년범죄 예방과 쇠퇴하는 도심을 활성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매상이 지역사회 일자리의 76%를 창출하며 청소년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Planning, 2006. 10. 25)

4. '전원도시 산업지역' 계획 발표 (일본 사이타마縣)

일본 사이타마(埼玉)縣은 2006년 10월, 수도권 중앙자동차도로(圏央道) 주변에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 산업관련시설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전원도시 산업지역' 계획의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개발 면적은 180ha로 생산액이 연간 최대 6000억 엔(약 4조 9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縣은 2002년 10월 이후 지속돼온 공업단지의 판매부진을 극복해 縣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생각이다. 기본방침에 의하면 '전원도시 산업지역'의 적용범위는 권양도(圏央道)의 각 인터체인지에서 약 5km 이내로 2007년부터 용지 매수를 시작해 2012년까지 8~10개의 모델 지역을 정비한다.

이번 계획의 특징으로 '경관에 대한 배려'를 들 수 있다. 권양도(圏央道) 주변에 광대한 전원 풍경이 남아 있어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산업입지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일반 '경관법'을 전원 풍경 유지와 산업 집적의 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경관에 맞지 않는 자재나 잔토(殘土)를 두는 곳에 녹지 조성을 막는 한편 진출 기업에 새로운 녹지 조성이나 저공해차 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협조하는 기업에는 분양지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縣은 180ha의 토지에 최대 80개 기업의 입지를 상정해 초기 투자의 경제 효과를 1200억 엔(약 9조 90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www.yomiuri.co.jp/e-japan/saitama/news001.htm)

5. 공익성 거리시설물에서 상업광고 철거 (북경)

북경市 시정관리 당국자는 향후 공공장소의 각종 공익성 시설물 설치 시 '도시 간선도로 시설물 설치계획'에 근거해 각 도로의 공익성 시설물 위치와 숫자를 정하고 그 외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익 시설물에는 상업성 광고를 금지하고 현재 설치된 상업 광고물은 철거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상의 공익시설물이라 함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인도에 설치하는 신문판매소, 안내판, 신문 가판대, 공중전화 부스, 쓰레기통, 선전판, 배전상자, 광고판, 간이 공중화장실, 우체통, 간이 방법파출소, 택시 정류장 시설물, 버스 정류장 등 노면을 차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북경市에는 총 38종 4만 227개의 공익시설물이 설치돼 있고 그중 3만 9000개가 시내에 설치돼 있다.

(北京日報, 2006. 11. 1)

6.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가구 쇼핑 할인 혜택 부여 (일본)

일본 정부는 2006년 4월 1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 쇼핑 할인 등 특전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시카와(石川)縣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시카와縣은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으로 18세 미만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가구에 패스포트를 발행한다. 패스포트 사업에 협력하는 상점에 제시하면 ‘10% 할인’, ‘마일리지 2배’ 등 상점마다 독자적으로 결정한 할인이나 특전을 받게 된다. 기업부담으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에서 縣은 패스포트 발행이나 협력점 모집 등을 담당한다. 200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약 1만 7000가구 중 60%가 패스포트를 신청했다. 기업에서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협찬하는 상점이 1150개에 이른다. 나라(奈良)縣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쿠마모토(熊本)縣, 사가(佐賀)縣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전을 받게 되는 기준은, ‘아이가 1명이라도 있는 세대’, ‘취학 전의 아이를 가지는 세대’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시카와縣 등의 사업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비 보조, 사업 노하우 등 정보 제공, 정부에 의한 협력기업 홍보 등의 지원책을 검토했다. 대상 가구나 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판단에 맡기게 된다. 일본 정부는 ‘육아가구 쇼핑 할인 사업’이 경제 지원과 육아 지원 모두에 효과적이라 판단해 2006년 6월에 발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도 포함했다.

(www.yomiuri.co.jp/komachi/news/mixnews/20060413ok0c.htm)

>>> 전문가 검토의견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정책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다자녀 가구에 쇼핑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의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에 더욱 가까운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의 효과는 참여기업의 확보와 홍보에 달렸는데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려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7. 수도 검침 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일본 다카마쓰市)

일본 다카마쓰(高松)市 수도서비스공사와 市 장수사회대책과(長壽社會對策課)는 2006년 11월부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수도 검침 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市 장수사회대책과는 재해 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독거노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공사와 市는 정보를 공유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협정서를 만들어 운용한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약 6500명으로 검침원이 2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검침 업무를 하면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장기 부채나 수도계량기가 움직이지 않은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장수사회대책과에 통보한다. 수도서비스공사는 “검침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는 노인이 많아 사회에 큰 공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www.yomiuri.co.jp/e-japan/kagawa/news003.htm)

>>> 전문가 검토의견

독거노인들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오랜 기간 방치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에게 쉽고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활용해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원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요한 지역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사회의 독거노인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게이트키퍼를 발굴해내고 이를 활용하는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8. 지하철 내부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및 대형 안내지도 설치 (런던)

런던지하철과 왕립 시각장애연구소, 디자인회사 'Describe Online'은 공동으로 런던 시내 지하철 역 3개소에 시각장애인(약시 포함)을 위한 역 구내 점자 및 대형 안내지도를 설치했다. 런던지하철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왕립 시각장애연구소가 전반적인 제작과 진행을 맡았으며 Describe Online이 지도를 제작했다. 현재 런던지하철 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역무원의 안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새로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안내지도에는 역무원의 안내 서비스와 함께 장애인 스스로 역 구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승·하차 지점 등 안내 정보가 수록됐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907)

9. 정신질환과 미술, 지하철이 만난다 (런던)

런던지하철의 대중 예술프로그램인 'Platform for Art'는 하이드파크(Hyde Park)에 있는 서펜타인 미술관(Serpentine Gallery)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선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특별 전시회와 연계해 포스터와 미술작품 전시회를 연다. 미술관과 정신질환자 지원단체인 North East London Mental Health Trust가 2년간 공동 협력해, 예술가들이 직접 단체활동에 참여해 얻은 영감으로 제작된 작품을 전시하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런던지하철은 3명의 화가에게 포스터와 엽서 제작을 의뢰해 지하철 공간에 전시한다.

(Metro, 2006. 9. 21)

한줄 뉴스

- 영국 교통부, 2006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 등을 담은 공공교통 통계자료 발표
 - 2010년까지 버스·경전철 이용자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

<런던>

- 市의회, 헬리콥터 이용 증가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와 런던시에 촉구
-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전까지 노숙자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숙자 지원 연대조직 'Homeless Link' 결성
- 런던 계획(London Plan) 재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항목 강조
 -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60% 줄이는 장기계획 수립

10. ‘쓰레기 초과 부담금’ 제도 실시 (미국 오클랜드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폐기물 초과 부담금’(Excess Litter Fe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상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주류 판매점이다. 이 상점들은 쓰레기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쓰레기 감소 촉진에 기여할 이 부담금은 쓰레기 처리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일에 사용된다. 이미 사업 개선지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업소는 쓰레기 초과 부담금의 50%만 납부하는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쓰레기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www.oaklandnet.com/WEBPAGEELF92206.pdf)

11. 휴대폰 메시지로 대기오염 정보 제공 (영국 서식스市)

런던대 킹스칼리지 환경연구단(Environmental Research Group)과 서식스(Sussex) 지방정부 연합, 서식스 시내 1차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Sussex Air Quality Steering Group’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통해 오염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인 ‘Sussex AirALERT’를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보를 받기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크기의 소형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006년 하반기에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www.londonair.org.uk/london/asp/news.asp?NewsId=News1)

(www.sussex-air.net)

12. 환경캠페인 “우리들의 마로니에를 구하라” 실시 (베를린)

베를린市는 2006년 10월 30일 베를린市 내의 마로니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우리들의 마로니에를 구하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이 캠페인은 마로니에에 번식하는 가는나방 일종(Cameraria ohridella)의 번식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했다. 이 캠페인의 주요 행사는 마로니에 낙엽을 모으는 일인데, 모은 낙엽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낙엽 속에 있는 가는나방의 번데기를 죽여 다음해 봄에 생길 발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 캠페인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활동을 조직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공공녹지 혹은 학교 내에서 낙엽을 모으는 방법으로 참여해 환경교육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캠페인의 포스터



가는나방 일종에 피해를 입은 마로니에 나무의 잎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10/nachricht2484.html)

13. 환경보존을 위한 'TX4' 블랙택시 모델 발표 (런던)

런던 블랙택시 제조회사는 새로운 환경보존 법령에 따라 제작된 'TX4' 블랙택시 모델을 발표했다. 런던에서 운행 중인 약 1만 7000대의 기존 블랙택시가 유럽연합의 환경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새로운 모델은 친환경 택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를 위해 약 9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08년 발효되는 유럽연합의 '공해배출 법령'(EU Emissions Standard)에 대처하는 목적도 있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런던만이 아니라 영국의 다른 도시지역에서도 같은 시도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www.rudi.net/node/11208)

도 시 교 통

14.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이용차량 단속 및 벌금 강화 (시드니)

시드니市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은 통상적으로 일반차량에 대해 요금 징수는 물론 주차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은 무료이면서 주차시간 제한이 없다. 이를 악용한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장 이용자 23%가 불법 이용자였다.

(cityofsydney.nsw.gov.au)

15. 버스노선 개편으로 적자감소 효과 10억 엔(약 83억 원) 발생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 교통국의 계획대로 시영버스를 개편할 경우 적자감소 효과가 10억 엔(약 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도 적자는 16억 2000만 엔(약 129억 원)으로 23억 엔(약 18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9개 노선의 일부 또는 전 구간을 폐지한다면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이용자의 반발만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국의 당초 계획은 49개 노선을 폐지하고 9개 노선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중 19개 노선은市 도로국이 '생활교통버스노선 유지제도'로 존속하기로 해 이들 노선을 제외한 39개 노선을 폐지할 경우를 감안하여 적자감소 효과를 계산했다. 적자 회복 효과가 10억 엔(약 83억 원)에 머문 것은 직원 인건비나 버스 연료비 등이 삭감되면서 운임이나 광고 수입 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영버스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영버스와 같은 수준의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운 상태다. 또 운전기사를 포함한 직원 약 200명, 버스 100대 이상이 남아 직원에 대해서는 조기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 외에 3년간에 걸쳐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낼 계획이다. 버스의 경우, 배기가스 규제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폐차한다. 그러나 적자노선을 없애는 손쉬운 방법으로는 시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영버스 노선폐지에 대해 교통국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전해진 문의나 불평은 3000건에 이르고 존속을 요망하는 서명은 10만 명에 달한다. 2006년 10월에 열린 시민 설명회에서 "적자 상태에서도 필요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공영 사업자가 아닌가?", "경영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가?"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www.yomiuri.co.jp/e-japan/kanagawa/news001.htm)

16. 주택 개발 시 청소년 여가공간 조성 지침 마련 (런던)

런던시장은 각 자치구와 도시·주택 계획, 개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발 시 청소년을 위한 놀이·여가 공간 조성 지침서를 발표했다.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의 최근 수정내용을 추가해 기존 도시계획·주택공급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한 이 지침서는 청소년을 위한 여가공간 조성 시 공간의 크기와 질,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호황과 유입인구 증가로 매년 3만 호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택지를 개발할 때 차량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나머지 주민 복지와 문화, 특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침서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 한 명당 최소 10㎡의 놀이공간을 할당하고 출입구 등을 변형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692)

>>> 전문가 검토의견

런던시의 청소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해왔던 사업이다. 2004년 캔 리빙스톤 런던시장이 재선되면서, 런던시 차원에서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도 이러한 사업의 하나다. 서울수도 아동·청소년 놀이공간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지침서 작성과 배포를 고려해야 한다.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khee@sdi.re.kr)

17. 어린이 친화적인 주거지 시설 계획 (영국)

영국 주택장관은 주거지 계획 수립 시 어린이 친화적인 주거지와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이 자동차 중심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과 주거환경 개발을 소홀히 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녹지와 공원, 정원 등의 공간을 주택개발과정에서 적극 고려하면서 개발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런던시장이 발표한, 주택개발 과정에서 어린이만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설정과 기준을 정한 지침서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택장관은 전했다.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652345.html)

>>> 전문가 검토의견

런던의 이 시책은 주택개발에서 주민을 위한 녹지와 공원 조성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 다소 고려가 미흡했던 가족 정원과 어린이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공간 조성 등을 제도화하고 지침으로 제시해 실제 적용한 사례로서 서울의 주거지 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시 공공공지, 소공원 등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수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조성된 공공공지와 소공원의 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영국의 제도와 지침 등을 검토해 서울에서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도 공원·녹지의 확보 및 조성, 어린이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의 구성과 이용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관련 제도 및 기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정훈 도시계획부 연구위원(jhmok@sdi.re.kr)

18. 악화되는 도시경관 문제 제기 (일본)

나고야市 나카區 소재 일본 중부개발센터는 중부권 도시경관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한 결과를 책자로 정리했다. 가로수가 관광명소가 된 유럽 시가지와 비교해 “중부권의 도시는 경관이 악화되고 있어 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경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책자는 1000부를 제작해 아이치(愛知)縣이나 국토교통성 등 관공서에 배포했다.

중부개발센터는 2005년 7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회에서 중부권의 도시경관 개선을 주제로 논의해 왔다. 전선(電線)이 지하에 설치돼 거리가 깨끗한 네덜란드 헤이그市나 포르투갈 리스본市 등의 사진을 책자에 소개했다. 이 책자는, 기후(岐阜)市나 미에(三重)縣 요카이치(四日)市 등에 있는 건물의 높이나 디자인이 서로 다르고 옥외 광고가 난립해 있으며, 녹지지역도 적다는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주택 신·개축 시에 대문이나 뜰을 만드는 방법 등을 정한 영국 런던市 웨스트민스터 지구의 경관 규제를 설명하고 “일본 지자체도 세부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부권의 성공사례로 아이치縣 이누야마(犬山)市나 기후縣 히다市 등의 오래된 거리풍경을 채택했다. “역사적인 경관이 있는 것과 더불어 주민의 경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아름다운 마을 조성의 요인으로 들었다.

(chubu.yomiuri.co.jp/news_k/cke060509_3.htm)

방재 · 안전

19. 효율적인 재난 구조를 위한 방재안전 물자 비축창고 설치 (북경)

북경市는 방재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한 통일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춰 효율적인 재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5개의 시립 방재안전 물자 비축창고를 건설할 예정이다. 북경市 발전개혁위원회와 민정국(民政局)은 2006년 10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경市 11차 5개년 계획에 의한 사회공공서비스 발전계획’(北京市“十一五”时期社会公共服务发展规划)을 발표했다. 이번에 방재안전 물자 비축창고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주목적은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방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다. 방재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이 비축창고가 방재 및 재난구조 물자를 적절히 공급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北京晚报, 2006. 10. 25)

한줄 뉴스

- 샌프란시스코市, 쾌적한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00여 개 지역사회와 거리 파트너십 시행
- 북경市,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부속 공중화장실 개방 권고안 마련
- 호주, 극심한 가뭄에 따라 단계별로 물 사용 제한조치 시행
 - 물 사용 제한조치는 총 5단계이며 1단계는 자율적인 절수 및 일부 스프링클러 사용 제한, 5단계는 식수 등 생활용수를 제외한 모든 물 사용 제한